

## 왜 독문과·불문과는 사라져 가는가?

박 동섭: littleegan@gmail.com

과거에는 인문대학의 간판학과였던 불문과의 폐지가 뒤따르고 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독문, 불문, 노문 등을 「유럽문화학부」로 통폐합하고 몇 년이 지났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독문, 불문, 노문학과가 있긴 하지만 그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그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그 학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반드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함)으로 그 학과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영어가 국제공용어의 패권전쟁에서 승리하여 사실상의 국제공용어(Lingua franca)가 된 것.

불어를 예로 들어보면 프랑스 자체의 문화적 발언력이 쇠퇴한 것. 문학에 관한 지식과 그것을 취미로 갖는 것의 좋은 점을 '문화자본'으로 카운트하는 습관이 사라진 것, 어학교육이 오릴 중심으로 바뀐 것 등을 들 수 있다.

처음 2가지는 글로벌한 사정이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다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은 두 가지는 이 나라의 사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후자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문화자본'의 정의로부터 한 번 더 확인해 두기로 하자.

'문화자본'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Bourdieu의 용어로 계층 차의 지표이고 또한 계층 차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교양, 지식, 기능, 취미의 좋은 점, 행위의 적절함, 인맥, 학력 등등을 문화자본에 넣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자본에는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것'(생득적

문화자본)과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습득한 것’(학습된 문화자본)의 두 종류가 있다.

문화자본의 비밀(즉 문화자본이 왜 ‘자본’으로서 기능하는가 그 이유)은 그것이 ‘두 종류 있다’는 원(原)사실 안에 존재한다. 즉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한 사람’과 ‘그것을 보고 흉내를 내서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적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 속에 문화자본의 자본성은 존재한다.

문화자본이라는 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화폐와 위신과 정보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화폐는 그것을 ‘화폐다’라고 믿는 사람이 존재할 때에만 존재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위신도 또한 내재적 자질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인간이 있고 한 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위압적이라는 것이 허용되는 것에 양자가 동의한 경우에서 밖에 출현하지 않는다. 주관적으로 ‘나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해도 상대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실소를 사는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자본’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두 환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혹은 ‘필요 없다’를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아니다.

환상은 환상 나름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환상이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기능부전에 빠지는지에 관해서는 리얼하고 쿨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문제는 ‘교양이 문화자본으로서 인지되지 않게 되어 버렸다’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나라와 월나라 시대, 오나라 왕인 후사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미희에 서시라는 여인네가 있었다. 서시는 지병인 위경련 때문에 걸을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 모습도 또한 아름답게 보여서 그 유약한 모습으로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는 풍설이 퍼졌기 때문에 후궁들은 빠짐없이 눈썹을 찌푸리고 걷게 되고 급기야는 오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눈썹을 찌푸리고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다.

신체적 고통 때문에 ‘눈썹을 찌푸리는’ 것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지 거기에 특별한 에로스적인 함의는 없다.

그것을 에로스적으로 유의미한 기호로서 해석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다. 그것이 에로스적 기호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에로스적 기호이고 미간 사이의 주름은 미적 형상이 된다.

이렇듯이 문화자본이라는 것은 늘 해석자 측의 욕망에 의해서 기동한다.

서시가 오나라 왕의 총애를 얻은 것은 미모 이외에도 이유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물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후궁들은(총애를 얻을 수 없는) 자신과 서시 사이의 위계차이를 그 밖의 차이(지성이라든지 정애(情愛)라든지)에서 구하지 않고 단지 ‘눈썹의 움직임’ 안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 때 미간은 오나라에서 당당하게 문화자본에 등록되었다. 어떤 종류의 지식과 기법이 문화자본으로 등록되는 것은 ‘그것이 있는 덕분에 저 사람은 저러한 권력과 위신과 재화를 손에 넣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문화자본이라는 것은 ‘오해’의 산물이다. 서시의 찡그린 얼굴에 본래 에로스적인 함의가 없는 것처럼 교양 그 자체에는 권력과 위신에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약속하는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권력과 위신을 갖고 있는 인간을 밑에서 부럽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 ‘차별화의 비밀’로서 때마침 ‘교양’이 비쳤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자본이 된 것이다. 그렇다 그냥 ‘때마침’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교양이 문화자본이 아니게 된 이유도 그래서 간단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권력과 위신과 재화와 정보 등의 사회적 리소스를 점유하고 있

는 사람들에게 교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특별히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사회적 상위자들의 꽤 많은 수가 우연히 교양이 있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자들은 ‘교양이 있으면 사회의 상층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다.

물론 사회적 상위자가 그 지위를 차지한 것은 교양 덕분이 아니다. 그것과는 다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시의 눈썹을 배우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황급히 교양을 익히려고 한 것이다.

#### 작금 사회적 상위자들에게는 교양이 없다.

대신에 ‘심플하고 clear-cut한 말투, 단호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투-역자주-경제를 살립시다’ 혹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전원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합시다나 아가서 학교교육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체육수업시수를 늘립시다- 같은 말투를 사용하고 ‘자신의 과오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매너가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전원에게 공유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이 능력에 의해서 사회의 상위층에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때마침 어떤 종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서 이러한 매너를 몸에 익히게 된 것 뿐이다.

그런데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계층차형식의 주요인이라고 오해해서 모두 심플하고 clear-cut한 말투, 단호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투’를 사용하고 ‘자신의 과오를 결코 인정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교양이 내팽개쳐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탄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교양의 재생 프로그램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 밖에 출세할 수 없는 프로모션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그래 바로 그거 ‘과거’의 부활이다.

관료도 정치가도 이것으로 ‘완전히 전원 교체 가능’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교양교육의 재구축’같은 범생 같은 발언 하지 말고  
한 방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과거에 의한 정치가와 고급관료의 등용’을 제언하는  
건 어떨까?

그 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경제부보다도 격상의 기관이 될 것이다.  
꼭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